

《자유연제 V 15:20 ~ 16:10》

당뇨병성 동 견관절의 관절경하 박리술
한창환 · 김진영 · 김원유 · 성진형 · 류재덕 · 정형균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정형외과

서론 : 동 견관절이란 견관절의 외전 및 외회전 운동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그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근에 연구에 의하면 Dupytren 구축과 비슷한 병리 현상을 보고하고 있다. 진단을 위해서는 회전근개의 파열에 의한 이차적인 관절막의 구축 등은 제외되어야 하며, 철저한 문진 및 이학적 검사가 중요하다. 이 질환은 대부분의 경우에 자발적으로 완전 회복을 관측할 수 있으나, 당뇨병 환자에서 발생하는 동 견관절은 도수 교정에 의하여 치료하기 어렵고, 많은 증례에서 지속적인 운동 및 기능 장애를 남기게 된다. 이러한 환자에서 저자들은 견관절의 운동 범위 및 기능 회복을 위하여 관절경하 유착 박리술을 시행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 보존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동 견관절을 가진 당뇨병 환자 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모두 5년 이상 당뇨병의 기왕력이 있으며, 이들 환자에게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의 약물 요법, 물리치료 요법 및 관절내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투여를 시도하였으나, 그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시 수술을 시행하였다. 이들 9명중 5명이 남성이며, 평균 연령은 43세(32-64세)이고, 평균 추시 기간은 12개월에서 37개월이며 평균 18개월이었다. 수술전까지 평균 증상은 16개월이고 최소 6개월 이었다. 수술은 측와위의 전신마취하에 후방 삽입구로 관절경을 삽입후 전방 삽입구로 웨이빙 기구를 넣어 전상방 관절와 상완인대, 관절내 견갑하근, 전방 관절낭 및 하부 관절낭을 분리하였고, 수술후 물리치료를 실시하여 운동 범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결과는 동통, 운동범위, 근육 강도, 안정성, 일상생활 5가지 요소로 견관절의 기능을 평가하는 American Shoulder Society score을 이용하였다.

결과 : American Shoulder Society Scoring에 의해 동통의 점수에서 4명이 5점으로 동통이 없었으며, 3명이 4점으로 약간의 동통이 있으며, 1명은 동통 3점, 나머지 한명은 지속적인 심한 동통을 호소하는 동통 1점 이었다. 운동범위에서는 6명에서 170도 이상의 상완 거상이 가능하였으나, 1명은 140도, 다른 2명은 80도, 60도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근육 강도에 있어서 6명의 환자에서 정상의 근육강도를 보였으나, 1명은 외 회전하에서 근력의 약화 소견이 관측되었으며, 나머지 2명은 모든 방향에서 good 정도의 근육 강도를 나타내었다. 견관절의 안정성에 있어서 7명의 환자에서 안정성을 나타내었으며, 2명의 환자에서 약간의 전방 불안정성이 관측되었으나, 탈구 혹은 아 탈구는 없었다. 일상생활의 기능면에서는 4명의 환자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나타내었다.

결론 : 당뇨병 환자에서 동 견관절의 초기에는 적극적인 물리치료 및 관절내 스테로이드 호르몬 등의 보존적인 치료가 필수적이거나, 6개월 이상의 동통과 견관절의 운동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관절경하 유착 박리술은 적은 합병증으로 환자의 기능을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